



심순희 카타리나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호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2사무 5,1-3

회답송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2독서 콜로 1,12-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루카 23,35L-43

성가	입당	73
	예물준비	217
	영성체	504
	파견	77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김윤태 베드로
위령성월맞아 가장 불쌍한 영혼위해
가장불쌍한 연옥영혼, 강무강, 박현진스페파노, 이현진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남해순 카타리나
홍옥기 영혼
이영화, 지경임 마리야
양세양 요셉

봉헌

양미숙 마리야
김지영 유스티나
구세주의 모후
익명
은총의 샘 꾸리아
윤요한, 루시아
이미숙 안나
이미숙 안나
윤루시아

생미사

김은영 마르셀리나 생일축하
강호영 안드레아 칠순
정윤옥 엘리사벳 생일축하
김흥기 안드레아, 여동건 루카
김중훈 미카엘, 남정자 미카엘라

봉헌

김지영 유스티나
조남록 미카엘, 조성자데레사
조남록 미카엘, 조성자데레사
김승연 안나
김신욱 토마스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징향기 노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1월 20일	이지훈 아녜스	백승민 안드레아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마리아, 김요셉	
11월 27일	백이백 아오스딩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 글라라 한서희 데레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매주 주일 11:00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미사 후 친교 모임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 대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한인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폐막미사

오늘(11/20) 09:15 대성당

한인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사랑의 음악회

12/4(일) 오후 2시~ 4시, 대성당

봉성체 신청

'몸이 편찮으신 분' '연로하셔서 주일 미사에 못오시는 분'은 봉성체 신청하세요!
신부님께서 매월 첫째주 목요일 방문하여 영성체와 안수를 해드립니다.
*신청:사무실 347-834-5784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Thanksgiving 저녁 안내

11/24(목) 오후 6시, 프란시스로에서 성당청년 들을 위한 저녁행사(식사, 와인)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문의: 김동관 베네딕도 카톡 ID dong0709

Email: fynnyag@gmail.net 또는 청년회 신자등록 큐알 코드에 접속후등록



청년회 새신자 안내

새 청년신자 분들은 큐알 코드로 신자등록을 하시고 본당 행사와 청년 단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위령 성월 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단체 모임

건진성사교리반	매주 주일 11:00	Korean Conf.Rm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 3A
우리즐거움의원천 Pr.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D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Conf. Rm(2F)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13:30	교육관 3B
청년회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A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8:00	Conf. Rm(2F)
신명풍물패	2,4 주일 14:00	교육관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Conf. Rm(2F)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Conf.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미사때 성가를 함께 부르십시오!

성가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교우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성가를 부르십시오!
성가를 정성껏 부르는 동안 우리는 이미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여 보십시오.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바란다. 전례헌장” 14항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한시찬 라파엘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감사의 마음." 루카 23,35 ~ 43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이란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100달러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달러를 놓고 나오는 그를,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동네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멍청 멍청 나와서 그 돈을 집어 갔다.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셋째,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그 동네는 날마다 100달러씩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고 평소에 그가 오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다렸다. 세 번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 주 쯤 되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매일 100달러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세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사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실험기한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더 이상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라고 따졌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만 원, 이만 원을 받다가 나중엔 수십만 원씩, 그 다음엔 수천만 원을 당연히 내게 줘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엔 만 원에 감사하다가 나중엔 수십만 원을 주어도 감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굶어 죽으면 돈 주던 사람 탓을 할 것 같은 말투다. 이런 사람에겐 계속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하나? 아니면 관계를 조금 끊어야 하나? 만 원을 주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배고프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건 아닐까?

사람은 받다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급기야 그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잊게 된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많은 경우가 자녀와 부모 사이다. 기껏 키워놨더니 해 준 것이 뭐냐며 부모에게 따진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는 돈이 있어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시켜 주는 날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희망의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부님은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셔서 정말 미사가 은혜로워"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전례의 의미

“우리 신부님은 강론 말씀이 너무 좋아.”

다른 봉당 신자들이 만날 때 기쁘게 이런 말씀을 나누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가 사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사로 대표되는 전례는 사제들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일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전례 헌장 7항 참조) 이 가르침에 따르면 전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모두가** 그분의 사제직을 수행하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공적 예배이기에, 단지 미사나 전례를 주례하는 **사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례가 우리 모두의 행위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전례 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이다.”(전례 헌장 10항 참조) 즉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자,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라는 것은 전례가 지향하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은 전례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느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이루는 근원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례를 통해 모든 신자들은 ‘파스카 신비에 바탕한 하느님 사랑’에서 은총과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전례 헌장 2항 참조) 전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파스카 신비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거행하는 것입니다.

